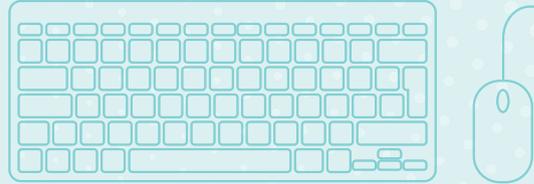


KIHA NEWS



2022 대한산업보건협회 온라인 시무식 개최



협회는 1월 3일 오전 10시 본부에서 2022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유튜브 생중계로 본부와 전국 현장을 연결해 진행됐다.

백헌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건 생태계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도전을 계속

해왔다”고 2021년 경영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죽제인(先卽制人) 즉, 먼저 준비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임직원이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낮설고 어렵지만, 우리의 밝은 미래로 향하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노동조합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팬데믹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일 때일수록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최선이라 생각하며 임금협상을 진행했고 노사가 긴 고민 끝에 파격적인 임금협상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난 10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신년사를 전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 : 매일노동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2월 23일 오전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자리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와 상승 탐차를 개발한 ㈜한국스마트탑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송길원 한국스마트탑 이사는 택배산업본부와 대리점연합회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의 탐차를 시연했다.

165 Cm 키의 그가 저상 탐차에서 물품을 옮기려면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만 했는데, 높낮이 조절 이후에는 똑바로 선 채 화물칸 내부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 송 이사는 "경기·인천·경남 진주 지역에 투입할 시제품을 CJ대한통운 측이 주문해 최근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가격대는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첫 번째 유형의 차량을 이용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평가한 결과 탐차 높이가 1.25 m일 때 위험수준 4단계(매우 높음)가 26.7%였고, 1.9 m일 때는 0%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저상차 유해 요인 조사에서도 하이탐차량(180 Cm 내외)과 저상 탐차(130 Cm 내외)를 비교해 근골격계질환 유해 요인을 평가한 결과 저상 탐차에서 배송순서 정리 작업을 하면 위험성 수준이 '높음(개선조치 필요)'으로 나타났다.

조기홍 직업건강환경연구실장은 "노동자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설비 품목에 상승 탐차를 포함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며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식기세척기를 지원설비 품목에 포함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산재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실천 노사공동 선언식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노동조합은 12월 16일 본부 5층 소회의실에서 '산재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실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지고 안전보건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백한기 회장과 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측 위원 8명과 근로자 측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모든 경영 및 근무 활동에 있어 고객과 직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정부 정책과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시민 안전보건문화 확산 '맞손'



협회는 시민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정재희, 이하 안실련)에 기금을 전달했다. 협회는 안실련과 함께 12월 30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소회의실에서 500만 원을 전달하는 '시민 안전보건문화 확산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금은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동영상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건의 등 선진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백헌기 회장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안실련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안전보건문화 확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는 후원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무료자문단운영과 안실련 유튜브 방송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시민단체가 무료로 널리 알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